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34호 현대불교  
2009년 6월 3일(음력 5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한마음으로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하는데...

☞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인간 몸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몸을 타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고 참으면서 견뎌왔는지, 여러분은 살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더러 좀 쉬시라고 그러고 어디 이런저런 데도 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나는 외려 그것이 더 쉬는 게 아닙니다. 고달픈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답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한번 이렇게 검토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거져 옵니다. 그리고선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피고 나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럴 때, 그렇게 구경을 하고 한 번 돌아오는 그 한순간의 생각이 나는 벌써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고 또 실감나지 않는 일이 돼서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도 돌에 있는 느낌, 흙의 느낌 그런 것만 걸터 먹으면서 살고 남하고 싸움하기 싫어하고, 또 연쇄적으로 서로 잡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걸 싫어하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풀 뜯어 가서 살면서 남을 파해서 그저 그런 거라도 걸어 먹고 살다가, 천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된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 년을 지내고 난 뒤에야 바로 인생이라는 한 껍질을 쓰고 나옵니다. 이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말고도 말입니다.

그렇게 천 년을 견디면서 남하고 싸움하지 않고,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을 해롭게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인간으로 껍질을 쓰고 나온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땠을까? 나무의 수많은 이파리들이 가을이 오면 그저 바들바들 떨어져 단풍이 쳐서 어디로 흔적 없이 하나하나 날아 떨어지는 거와 같은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동물들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들

도 또, 남들하고 싸움하기 싫어서 사람들 인적이 아주 없는 그런 곳에, 살 수도 없고 추운 기도 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눈을 해져 가면서 그저 풀뿌리만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또는 동물들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데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위에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래서는 추기가 오고 먹을 것은 별로 없고, 또 어느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산골짜기의 물이 흐르는 데서 일 년에 한 번도 얻어먹기 어려운 생물이 나오기를 지키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데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나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라든 기독교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그 뜻을 말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골짜기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물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요행히 하나 얻어서 먹고, 일 년에 몇 번 얻어먹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면서 또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외롭게 이렇게 살면서도 천 년을 견뎌야 사람의 껍질을 쓰고 또 이들에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의 껍질을 썼는데, 그 사람의 껍질이 한갓 나무 이파리와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모두를 아신다면 목을 놓고 앉아서 울어도 시련이 없는 일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껍질 대고 웃어도 시원치 않고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들이 수없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또 어우러졌습니다. 인간의 한 이파리로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 나무에 모두 있다가, 그저 하나 떨어지고 돌 떨어지면 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는 떨어지면 간다는 얘기도 없고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떠나갑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러나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너는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친지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그 나무 이파리를 보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런데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은 그래도 생명이 소중할 거라, 그 몸 하나하나를 아주 허탕 내버리지 않고 그 땅에 도로 거름이 돼 줍니다. 낙엽이 수량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히는 것은 인간의 거름이 돼 주려고 밟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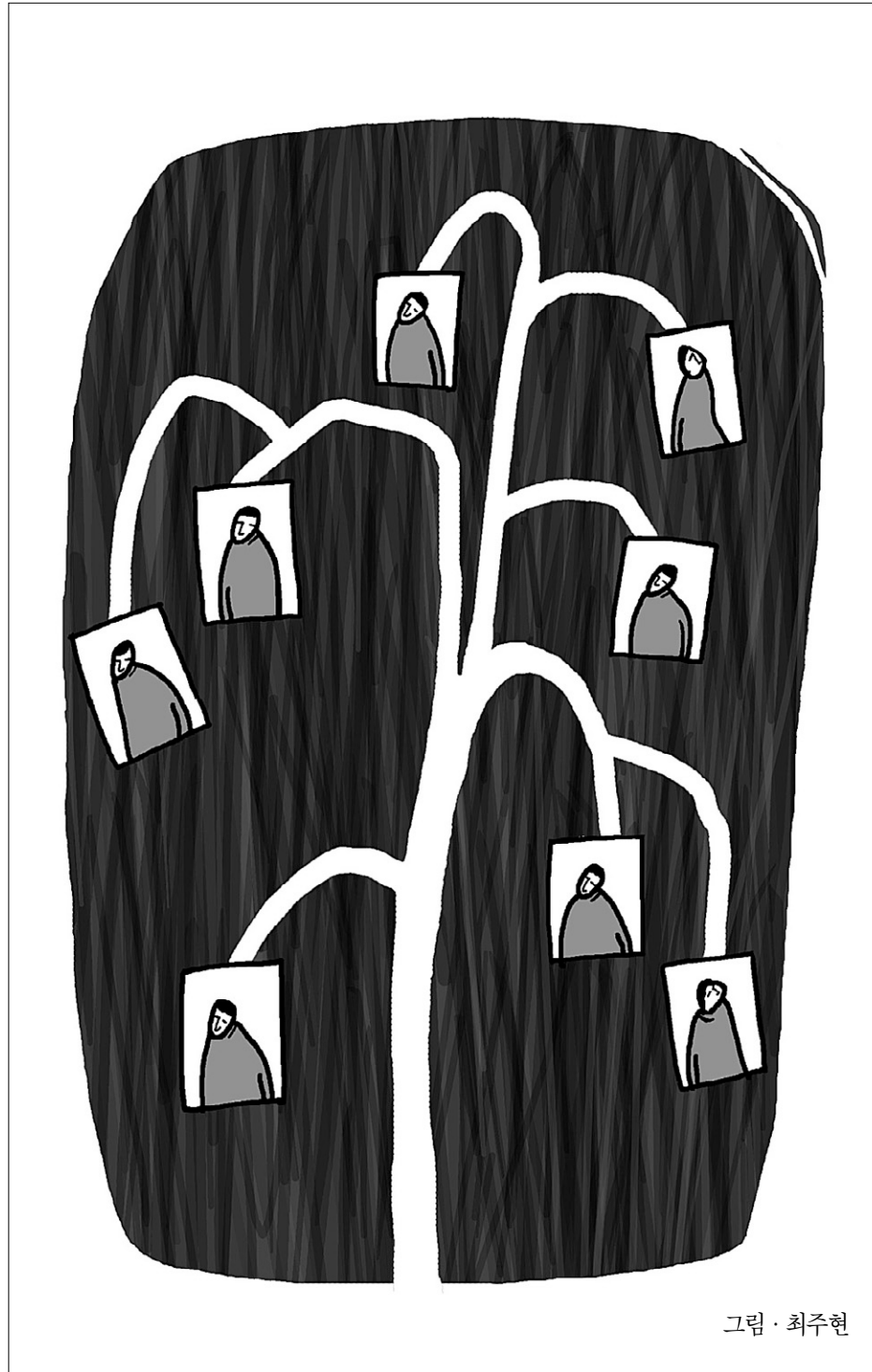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게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 왔고, 알아 왔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나무 밑을 걸으면서도 혼자 걸

기 좋아하고, 밭 밟고 걷기 좋아하고, 눈 밟고 걷기 좋아하고, 누가 있는 것보다 혼자 걷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혼자 걸을

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하나처럼, 길을 가다가도 나뭇잎이 떨어지면 '히, 또 하나 떨어졌군.'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이렇게 한번 중얼중얼거리고 갑니다. '임이시여, 임이시여, 당신은, 나는 간담 말 없이 가지마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밑에 떨어져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손을 한데 모으고 거름이 돼 주렵니다. 당신이 추우면 추위를 면해 드리기 위해서 덮어 주렵니다. 봄이 되어 따뜻하면 나는 당신의 거름이 진저 되렵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에도 한 이파리에 지나지 않게 한 인생이 뜬구름처럼 그냥 그냥 훌쩍훌쩍, 훌쩍훌쩍 가 버립니다. 그렇게 바람과 구름같이 스쳐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는 그렇게 스쳐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스쳐 가면 스쳐 가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또 옮겨가고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 사람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겹겹이 겹쳐진 인생의 그 생로를 슬프게 아프게 거쳐 오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고, 그 비수같이 살을 에어 내는 바람도 우리는 마다 않고 이렇게 겪어 나와서, 오늘날에 인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이 금이 모이듯이, 남마전에 남마가 모이듯이 우리는 예전에도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예는 그 아픔을 서로 견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 벗기 전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 차원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 오계의 첫번째가 불살생계입니다. 나는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먹고살아서 다른 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 항상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공생 공심 공체 또는 공용 공식 한다고요. 그건 왜냐 하면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도 다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하고 바로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하나 가지고도 지구와 같이 더불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생물에서

26면으로 계속

##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 게 아주 중요하죠?

40년병에 얼굴생김새, 목소리, 체형, 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유전적인병명, 현재알고있는병들을 만나는데로 알 수 있고 체질한약치료 병을 고치는분을 만나보오세요.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오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 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번번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례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 팔공범음범패 학인모집

팔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는 팔공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 있는 출가수행 승려와 재가 불자들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팔공범패란 : 대구 팔공산 이남의 영남 지방에 퍼진 이른바 팔공산 소리이다.

◆ 자 격 : 승려, 범패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 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 의식

1. 범 패 : 거불, 복정계, 가영, 향수나열, 도랑계, 다계.

2.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오공양, 극락무, 살풀이

(49재 및 천도재 의식을 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 교육장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18번지 금륜사

◆ 문 의 : 054)336-5255

팔공범음범패 교육원

김문기 박사의

##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 (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요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 소 : 수원 상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기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